

두벌, 세벌, 직결 폰트

Nova d. Hi

2023년 12월 4일 버전 0.3.1

차례

1	서론	1
2	요약	2
2.1	사용법	2
2.2	용어	2
3	세벌식 입력	3
3.1	세벌식 입력을 세벌식 직결 글꼴로 식자	3
3.2	세벌식 입력을 유니코드 자모 글꼴로 식자	5
4	두벌식 입력	7
4.1	두벌식 입력으로 아스키 직결 글꼴 사용	7
4.2	두벌식 입력으로 한글 식자	9
A	부록	9
A.1	폰트	9
A.2	예문	10
A.3	enqjftlr 패키지 요약	16

1 서론

KTUG 게시판의 <KTUG:세벌식 직결 글꼴의 추억> 게시글에서 토론한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관련된 논의를 조금 추가하였다. 마지막 소절(4.2)에서 다루고 있는 “두벌식 입력”을 위한 [enqjftlr](#) 패키지 이야기는 <KTUG:enqjftlr vozlwl> 글에 있다.

첨부된 패키지 파일은 다음과 같다. 이 글은 이 가운데 [sebeoldirect](#) 패키지 문서를 겸한다.

sebeoldirect.sty 3.1절, 3.2절, 4.1절에서 다루고 있는 패키지이다.

enqjftlr.sty 별도로 작성된 두벌식 한글 입력 패키지이다. 이 글의 4.2절에서 참조하고 있으므로 동봉하였다. “두벌식”을 한/영 전환 없이 입력한 것과 같은 이름이다. 이 패키지의 패키지 문서는 따로 없고 업로드 되어 있는 `test.tex`이 설명서를 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략의 사용법은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편의를 위하여 부록 A.3에 [enqjftlr](#) 패키지 명령을 요약해두었다.

이 글에서 논의된 모든 패키지는 \LaTeX 에서 어려없이 컴파일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문서도 \LaTeX 으로 컴파일한다. \pdf\TeX 은 지원하지 않는다.

2 요약

2.1 사용법

```
\usepackage{sebeoldirect}
```

\sebeoldirect 세벌식 입력열을 세벌식 아스키 직결 폰트로 식자한다. 이 패키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명령 이름이 **\sbl**이었던 관계로 축약형 **\sblirect**로 줄여 쓸 수 있다. 3.1절.

```
\sebeoldirect{jthg mr jeygzjdjt2jg3hduf. kgktqjgs ifsydpv mrnbj4x1fa.  
kgur nvhekf jvld jfSjgs mrnbj4x1fa. kgktqjgs ltaifw 'rj6ajgs  
hryellvjeuv ;dZ jtXhgs mrnbj4x1fajdjt2ldj4. kgythf hfhgs kgur nvhej8  
pesldygw kfngzjc ldhds or kguryv jdlbjdw kfsj8 hfwjgw ;vhr2ldj4.}
```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리포 해수욕장. 그대 소녀가 오지 않은 해수욕장. 그것은 정말 태양은 내려쬘여도 빛 없는 해수욕장이었지요. 그러나 나는 그대 소녀의 편지를 가슴에 지닌 채 그대로 이주일 간의 날을 보냈지요.

\sebeoluni 세벌식 입력열을 유니코드 자모 직결 폰트 또는 한글 폰트로 식자한다. 3.2절.

```
\sebeoluni{jthg mr jeygzjdjt2jg3hduf. kgktqjgs ifsydpv mrnbj4x1fa.  
kgur nvhekf jvld jfSjgs mrnbj4x1fa. kgktqjgs ltaifw 'rj6ajgs  
hryellvjeuv ;dZ jtXhgs mrnbj4x1fajdjt2ldj4. kgythf hfhgs kgur nvhej8  
pesldygw kfngzjc ldhds or kguryv jdlbjdw kfsj8 hfwjgw ;vhr2ldj4.}
```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리포 해수욕장. 그대 소녀가 오지 않은 해수욕장. 그것은 정말 태양은 내려쬘여도 빛 없는 해수욕장이었지요. 그러나 나는 그대 소녀의 편지를 가슴에 지닌 채 그대로 이주일 간의 날을 보냈지요.

\dubeoldirect 두벌식 입력열을 세벌식 아스키 직결 폰트로 식자한다. 4.1절.

```
\dubeoldirect{djsm go dufmadldjTdmqslek. rmrjtdms aksflvh gotndyrwkd.  
rmeo thsurk dhwl dksgdms gotndyrwkd. rmrjtdms wjdakf xodiddms  
sofuWhdueh qlc djqtsms gotndyrwkddldjTwldy. rmfjsk sksms rmeo thsudml  
vuswlfmf rktmadp wlsls co rmeofh dlwndlf rksdml skfdmf qhsoTwldy.}
```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리포 해수욕장. 그대 소녀가 오지 않은 해수욕장. 그것은 정말 태양은 내려쬘여도 빛 없는 해수욕장이었지요. 그러나 나는 그대 소녀의 편지를 가슴에 지닌 채 그대로 이주일 간의 날을 보냈지요.

2.2 용어

폰트 이 글에서는 ‘폰트’와 ‘글꼴’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넘나들어 썼다.

입력열 조판을 위하여 주어지는 아스키 문자열을 가리킨다. 이 패키지에서 입력열이라 함은 세벌식이든 두벌식이든 한글 자판을 한/영 전환 없이 아스키 글자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스키 직결 글꼴 동봉한 direct.ttf와 NanumBarunGothic-Direct.ttf를 말한다. 이 폰트들의 아스키 영역에는 세벌식 최종 자판에 맞추어 예컨대 K 글자 위치에 초성 ㄱ이 배치되어 있다.

유니코드 직결 글꼴 UnJamoBatang.ttf와 UnTaza.ttf 글꼴을 가리킨다. 이 폰트의 한글 자모 영역([U+11XX])에 배치된 한글 자모는 초중종성에 따라 배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GPOS로 완성형 글자와 연결하지 않고 단순히 자모 코드 글리프를 출력해도 한글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한글 폰트 한글을 자모 코드로부터 완성자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폰트를 가리킨다.

3 세벌식 입력

3.1 세벌식 입력을 세벌식 직결 글꼴로 식자

세벌식 입력은 세벌식 ‘최종’ 자판(3-91)에 의한다.

~ ※ ! ㄱ @ ㄷ # \$ % ^ = & " * ' (') ~ - ; + + W ←	
Tab ↵ Q ㅈ W E ㅊ R ㅌ T ㄹ Y 5 U 6 I 7 O 8 P 9 { % } /	
Caps Lock ⬆ A ㅏ S ㅓ D ㅖ F ㅍ G ㅅ H 0 J 1 K 2 L 3 : 4 " ' . ← Enter	
Shift ⬆ Z ㅊ X ㅙ C ㅓ V ㅕ B ? N - M < , > . ? ! Shift ⬆	
Ctrl	Win Key Alt 한 자 한 / 영 Alt Win Key Menu Ctrl

그림 1: 세벌식 3-91 자판 배열. 그림의 출처는 <위키백과:세벌식 자판>.

입력은 한/영 전환을 하지 않은 아스키 입력 상태로 하여야 하고 `\sebeoldirect` 명령의 인자로 입력 열을 부여한다.

1. 모아치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모아치기를 지원하려면 입력 문자열을 음절 단위로 분석하고 음절 내에서 문자의 배열을 초-중-종 순으로 재배열해주면 안될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2. 세벌식 최종 자판에서 % 키에 할당되어 있는 종성 ㅁ 문자는 \LaTeX 의 주석(comment) 부호와 겹치기 때문에 ww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 종성은 현대 우리말에서 ‘흙다’나 ‘흠다’에서 사용되는 정도이다.

세벌식 직결 글꼴(또는 아스키 직결 글꼴)은 필자가 아는 한 두 개밖에 없는데, 김용묵이 제작한 direct.ttf¹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NanumBarunGothic-Direct.ttf라는 것이다.²

¹ <김 용묵의 절대 공간::공 병우식 한글 기계화의 철학>에서 다운로드하였다.

²Debian 패키지 [fonts-alee](#)에 예전에 들어 있던 hmfs.ttf는 지금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외의 아스키 직결 글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NanumBarunGothic-Direct.ttf의 제작 관련 사실을 아는 분은 제보해주시기를 바란다. KTUG 게시판의 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Basic Latin

U+0010-001F	-	-	-	-	-		_	']	[&	\$		#	^	@
U+0020-002F		ᄀ	·	ㅈ	ㅊ	ㅋ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U+0030-003F	ᄃ	ᄅ	ᄇ	ᄉ	ᄋ	ᄍ	ᄏ	ᄑ	ᄓ	ᄕ	ᄗ	ᄛ	ᄟ	ᄡ	ᄣ	ᄥ
U+0040-004F	ᄧ	ᄨ	?	ᄫ	ᄭ	ᄯ	ᄱ	ᄳ	0	7	1	2	3	"	-	8
U+0050-005F	9	ㅖ	ㅘ	ㅙ	ㅚ	6	ㅜ	ㅝ	ㅞ	ㅟ	5	ㅠ	[:]	=
U+0060-006F	‘	°	ㅢ	ᄴ	ᄶ	ᄷ	ᄹ	ᄺ	ᄻ	ᄽ	ᄿ	ᅀ	ᅂ	ᅄ	ᅆ	ᅈ
U+0070-007F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	₩	}	※	-	

Total number of glyphs shown from NanumBarunGothic-Direct.ttf: 106

그림 2: NanumBarunGothic-Direct.ttf의 아스키 영역

컴파일하면 해당 부분을 직결 글꼴로 식자하는 것이다. 디폴트는 direct.ttf이다.

```
\sebeoldirect{nvheje? hrkf kgurygw ifshfs ktqjgs
;twnt nfzhesjdyfhgs ncj9twjd ldhflld jfSjf2kc2jg3hdkkf.}
```

소녀여! 내가 그대를 만난 것은 벌써 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식자할 폰트를 선택하는 명령 `\selectDirectfont`를 정의해두었다. 인자로는 d(direct.ttf)와 n(NanumBarunGothic-Direct.ttf) 둘 중 하나를 지정한다.³ 폰트 feature를 설정하고 싶으면 그 뒤에 옵션 인자 형식으로 잇대어 써준다. 다음은 예이다. AutoFakeBold는 feature를 부여하는 보기를 위해 예시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

```
\selectDirectfont{n}[AutoFakeBold]
```

```
\selectDirectfont{n}
\sebeoldirect{kgur nvheygw ifshfs ktqjgs m/fxndwmd kg jtuutmfs
jbjesjgs jfhjdjt2jtj4.
kgktqjgs jtudkkfldhf jbsiealtxjdjt2ufhgs ktqjd3hdudf.}
```

그대 소녀를 만난 것은 확실히 그 어떠한 우연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스키 직결 글꼴에 의한 식자는 기본적으로 아스키 입력을 한글(처럼 보이는) 폰트로 찍는 것뿐이다. 그래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조판기가 이 입력 문자열을 한글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므로) 하이픈 처리를 하려 함으로써 글자의 중간이 분질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raggedright` 상태로 조판하는 것이 좋다.

그림 2는 NanumBarunGothic-Direct.ttf의 문자표이다.

³만약 이 통과하는 다른 종류의 직결 글꼴이 발견될 때를 대비하여 폰트 이름을 그대로 써주어도 되게 되어 있다.

3.2 세벌식 입력을 유니코드 자모 글꼴로 식자

유니코드 자모 글꼴이란 직결식 글꼴의 일종이지만 앞 절에서 보인 폰트들이 한글 자모를 ASCII 영역에 배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니코드 한글 자모 영역에 배치한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폰트가 이 영역에 글리프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직결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초·중·종성 문자의 폭과 위치를 영리하게 설정하여 자모 코드가 순서대로 나열되면 마치 한글 완성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폰트는 은 글꼴 자모 바탕 글꼴과 은 바탕, 은 돌음, 은 타자이다.⁴ 이 모두 TeXLive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Basic Latin																
U+0000-000F	-	-	-	-	-	-	-	-	-	-	-	-	-	-	-	-
U+0020-002F	-	!	"	#	\$	%	&	'	()	*	+	,	-	.	/
U+0030-003F	0	1	2	3	4	5	6	7	8	9	:	;	<	=	>	?
U+0040-004F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U+0050-005F	P	Q	R	S	T	U	V	W	X	Y	Z	[\]	^	_
U+0060-006F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U+0070-007F	p	q	r	s	t	u	v	w	x	y	z	{		}	~	-
Hangul Jamo																
U+1100-110F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ㅡ	ㅣ
U+1110-111F	ㅊ	ㅌ	ㅍ	ㅎ	-	-	-	-	-	-	-	-	-	-	-	-
U+1160-116F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ㅗ	ㅛ	ㅜ	ㅠ	ㅣ
U+1170-117F	ㅗ	ㅛ	ㅜ	ㅠ	ㅣ	-	-	-	-	-	-	-	-	-	-	-
U+11A0-11AF	-	-	-	-	-	-	-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U+11B0-11BF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U+11C0-11CF	ㅏ	ㅑ	ㅓ	-	-	-	-	-	-	-	-	-	-	-	-	-

Total number of glyphs shown from UnDotum-Direct.ttf: 163

그림 3: UnDotum-Direct.ttf의 글리프

이제 세벌식 입력을 이 폰트로 식자해보자. 세벌식으로 입력된 문자열을 `\sebeoluni` 명령의 인자로 전달하면 된다. 폰트를 바꿀 때는 `\DirectJamofont`라는 매크로를 `\renewfontfamily`한다. 다른 추가 설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UnJamoBatang.ttf로 입력열을 조판한다.

```
\sebeoluni{kgdykv nvhekf kealbjemrajgw uuthfs uurjc,
kgwnnc kg jtyejbs jdwmraj8 hbsugwjgw pdmr kfie ntjbwjexjcnt
hfygw ifshflbuts kg nryvjbs kdjtxugw.
```

⁴현재 이 글꼴들은 단순한 직결 글꼴만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UnDotum-Direct.ttf 관련된 문단의 서술을 참고. 한편 은 자모 돌음, 노벨, 소리 글꼴은 은 자모 바탕과는 달리 자모 직결 폰트가 아니다.

```
jv? hr kfngzjgs kgythf ldkgz, j/r jdyt1kc k/dyvjbbskfj4.}
```

그리고 소녀가 경주여행을 떠난 때에, 글썸 그 어려운 일행의 눈들을 피해 가며 서울역에서 나를 만나주던 그 새로운 기억들. 오! 내 가슴은 그러나 지금,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유니코드 직결 글꼴의 아이디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UnDotum.ttf에서 아스키 영역과 한글 자모 영역의 현대 한글 자모만을 남기고 다른 글리프와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UnDotum-Direct.ttf를 구성하였다. 이 폰트에는 한글 음절 영역 완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3은 이 폰트의 모든 글리프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세벌식 입력열을 식자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단어 간격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좁히는 옵션을 주었다.)

```
\renewfontfamily\DirectJamofont{UnDotum-Direct.ttf}[WordSpace={.5,.1,.1}]
\sebeoluni{kgythf nvhehgs hfj8 ;bwmrajgw ifjgzkkq hbsibw
mgwyelbs nvhekf jfhdkc2jv.
kgythf hfhgs ;bwmramfkc mflhdgs jfSjf2ufkv nrakfxmr2jv.}
```

그러나 소녀는 나의 불행을 마음껏 눈물 흘려준 소녀가 아니겠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오.

이 결과를 통하여, “자모 글리프만을 나열해도 한글처럼 읽히도록 조성한 폰트”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eX Live에 있는 은 글꼴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폰트로서, 관련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 완성자와 연계하여 식자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직결 글꼴”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적합한 면이 있으나 아이디어와 컨셉트는 이와 같다.

은 타자로 폰트를 바꾸어본다. 어간(wordspace)이 좁아서 답답한 느낌이 난다면 \spaceskip을 조금 주는 것도 좋다.

```
\renewfontfamily\DirectJamofont{UnTaza.ttf}
\spaceskip=.5em plus .1em minus .1em
\sebeoluni{kgythf nvhehgs hfj8 ;bwmrajgw ifjgzkkq hbsibw
mgwyelbs nvhekf jfhdkc2jv.
kgythf hfhgs ;bwmramfkc mflhdgs jfSjf2ufkv nrakfxmr2jv.}
```

그러나 소녀는 나의 불행을 마음껏 눈물 흘려준 소녀가 아니겠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오.

세벌식 입력으로 은 자모 글꼴을 직결 글꼴로 사용한다는 발상을 다시 생각해보면, 실제로 입력 스트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한글 자모 코드일 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제대로 된 한글 폰트로 식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경우를 위하여 \UseHangulfont를 선언해야 하고⁵ \DirectJamofont의 feature로 Script=Hangul을 반드시 선언해야 한다.

⁵\UseDirectfont는 이와 반대되는 선언이다.

```
\UseHangulfont
\renewfontfamily\DirectJamofont%
{HANBatang-LVT.ttf}[Script=Hangul,Renderer=OpenType]
\sebeoluni{kgythf nvhehgs hfj8 ;bwmrajgw ifjgzkkktq hbsibw
mgwyelbs nvhekf jfhdkc2jv.
kgythf hfhgs ;bwmramfkf mfl dhgs jfSjf2ufkv nrakfxmr2jv.}
```

그러나 소녀는 나의 불행을 마음껏 눈물 흘려준 소녀가 아니겠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오.

출력된 pdf에서 텍스트를 복사하여 보면, 완전한 한글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니코드 자모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세벌식 한글 텍스트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

4 두벌식 입력

4.1 두벌식 입력으로 아스키 직결 글꼴 사용

아스키 직결 글꼴은 세벌식 최종 자판에 해당하는 QWERTY 자판의 아스키 문자 위치에 한글을 세벌식으로 짜넣은 것이다. 두벌식 입력으로 이 글꼴을 “직결”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벌식 입력을 어떻게든 세벌식으로 변환한 다음 직결해야 한다.

명령 `\dubeoldirect`는 (한/영 전환을 하지 않고) 두벌식으로 입력한 아스키 문자를 세벌식 직결 글꼴로 식자하게 하는 명령이다. 필자가 (전향 후 수십년) 이제는 거의 세벌식 자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벌식 입력 샘플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것이기도 하다. 반은 재미로 만든 것이다. 숫자와 문장부호는 변환되지 않고 오직 한글 문자만 변환되므로 마침표와 쉼표 이외의 숫자와 문장부호는 이 명령의 밖에 두어야 한다. `\raggedright`를 이런 종류의 폰트를 쓸 때 추천하였다.

```
\usepackage{enqjftpqjf}
```

```
\raggedright
\dubeoldirect{djsm go dufmadldjTdmqslek. rmrjtdms aksflvh gotndyrwkd.
rmeo thsurk dhwl dksgdms gotndyrwkd.
rmrjtdms wjdakf xodiddms sofWhdueh qlc djqtsms gotndyrwkddldjTwldy.
rmfjks ksms rmeo thsudml vuswlfmf rktmadp wlsls co rmeofh
dlwndlf rkdsml skfdmf qhsoTwldy.}
```

어느 해 여름이었읍니다. 그것은 만리포 해수욕장. 그대 소녀가 오지 않은 해수욕장. 그것은 정말 태양은 내려쬘어도 빛 없는 해수욕장이었지요. 그러나 나는 그대 소녀의 편지를 가슴에 지닌 채 그대로 이주일 간의 날을 보냈지요.

n 폰트로 바꾸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
\raggedright
\renewfontfamily\Directfont{NanumBarunGothic-Direct.ttf}
\dubeoldirect{skwdlaus skweofh wj qkekrk tnvdutjs rm dufqdm
  tlsrlfndp rmeo thsudml ahtmqdms djswpsk ajanffj dITdjTrh
  qkadlaus qkaeofh gmlgksgks ekfanfldp rmeo thsudml rnldudns
  ahtmqdms ajanffj dITdjTejs rjtdlqslek.}
```

낮 이면 낮 대로 저 바닷 가 수평선 그 옆은 신 기루에 그대 소녀의 모습 은 언 제나 머물 러 있었 고 밤 이면
밤 대로 희한 한 달 무리에 그대 소녀의 귀여운 모습 은 머물 러 있었 던 것 입 니다.

이 부분을 pdf에서 끊어서 복사하면 그대로 세벌식 코드가 된다. 직전 문장을 복사하여 붙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hf#jdies hf#uryv lt ;fufqkf nbpeants kg jeDjgs ndskdybjc kgur nvhej8
↪ ivng3jgs jtslchf itibwyt jd2jt2kv ;fzjdies ;fzuryv m8mfsmfs ufwibydc
↪ kgur nvhej8 k9djejbs ivng3jgs itibwyt jd2jt2uts ktqjd3hduf.
```

이걸 앞서 보였던 “세벌식 입력을 유니코드 폰트로” 방식으로 조판해보자.

```
\UseHangulfont
\renewfontfamily\DirectJamofont{HANDotum-LVT.ttf}[Script=Hangul]
\sebeoluni{hf#jdies hf#uryv lt ;fufqkf nbpeants kg jeDjgs ndskdybjc kgur
↪ nvhej8 ivng3jgs jtslchf itibwyt jd2jt2kv ;fzjdies ;fzuryv m8mfsmfs
↪ ufwibydc kgur nvhej8 k9djejbs ivng3jgs itibwyt jd2jt2uts ktqjd3hduf.}
```

낮이면 낮대로 저 바닷가 수평선 그 옆은 신기루에 그대 소녀의 모습은 언제나 머물러 있었
고 밤이면 밤대로 희한한 달무리에 그대 소녀의 귀여운 모습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 문제를 잠깐 살펴보기 위하여 한 단어만 식자하여 테스트한다.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 문자가 나올
것인데 이것은 ww으로 바꾸어야 한다.

```
\dubeoldirect{gnfxdjqrhl gkfxdkajrrl}
```

훑어보기 할아먹기

mb%jt;vkd_mf%jfitxkd ⇒ mbwWjt;vkd_mfwWjfitxkd

```
\sebeoluni{mbwWjt;vkd mfwwjfitxkd}
```

훑어보기 할아먹기

4.2 두벌식 입력으로 한글 식자

이것은 필자가 이미 `enqjftlr.sty`라는 패키지를 만들어둔 것이 있다. 사용법에 대해 부록 A.3절에 간략히 정리해두었다.

```
\usepackage[hangulfont={HANBatang-LVT.ttf}]{enqjftlr}
```

```
\hg{sksms rm zkazkagks rm wldhrdp rktjeh sksms chtqnfdfm zuemfrh  
rmeo thsurk ehfdkdhsms, wlswd rmeo thsufmf rlekflrh dlTrpTdmqslek.}
```

나는 그 캄캄한 그 지옥에 가서도 나는 촛불을 켜들고 그대 소녀가 돌아오는, 진정 그대 소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 부록

A.1 폰트

이 글에 사용된 폰트는 다음과 같다.

direct.ttf, NanumBarunGothic-Direct.ttf: 동봉함.

UnDotum-Direct.ttf: 동봉함. UnDotum.ttf에서 순수하게 자모 글리프만을 추출하여 조성한 유니코드 직결 글꼴의 샘플. 이 패키지 설명서를 위하여 새로 만들었음.

UnBatang.ttf, UnDotum.ttf, UnJamoBatang.ttf, UnTaza.ttf: TeX Live [unfonts-core](#), [unfonts-extra](#) 패키지 폰트.

Libertine, LinBiolinum: TeX Live [libertine](#) 패키지 폰트.

Inconsolatazi4: TeX Live [inconsolata](#) 패키지 폰트.

D2Coding: Naver D2Coding. <https://github.com/naver/d2codingfont>

Noto Serif CJK KR: 본문 한글 글꼴. Google Noto CJK. <https://github.com/notofonts/noto-cjk>

HANBatang-LVT.ttf, HANDotum-LVT.ttf: KTUG 사설저장소 패키지 [hcr-lvt](#)에 포함된 폰트.

name	type	encoding	emb	sub	uni	object	ID
ZSTXXU+NotoSerifCJKkr-Regular-Identity-H	CID Type 0C	Identity-H	yes	yes	yes	5	0
JGNEJL+LinLibertineO-Identity-H	CID Type 0C	Identity-H	yes	yes	yes	7	0
ZTJVAH+NotoSerifCJKkr-Bold-Identity-H	CID Type 0C	Identity-H	yes	yes	yes	9	0
ZJPZTU+LinBiolinumO-Identity-H	CID Type 0C	Identity-H	yes	yes	yes	25	0
VWPPSN+LinLibertineOB-Identity-H	CID Type 0C	Identity-H	yes	yes	yes	28	0

ZOJZUY+Inconsolatazi4-Bold-Identity-H	CID Type 0C	Identity-H	yes yes yes	33	0
YEMEBY+Inconsolatazi4-Regular-Identity-H	CID Type 0C	Identity-H	yes yes yes	39	0
QDDMN+DirectHangeul	CID TrueType	Identity-H	yes yes yes	47	0
NQFUZM+UnJamoBatang	CID TrueType	Identity-H	yes yes yes	50	0
LJNLRW+D2CodingBold	CID TrueType	Identity-H	yes yes yes	53	0
TNWIGR+NanumBarunGothic-Direct-391	CID TrueType	Identity-H	yes yes yes	66	0
SPHTQZ+UnDotum-Direct	CID TrueType	Identity-H	yes yes yes	77	0
KPPACV+UnTaza	CID TrueType	Identity-H	yes yes yes	79	0
GNITGZ+HCRBatangLVT	CID TrueType	Identity-H	yes yes yes	85	0
LFJGOI+CMMI7	Type 1C	Builtin	yes yes no	90	0
SYNKOY+CMSY7	Type 1C	Builtin	yes yes yes	91	0
JWWLKM+HCRDotumLVT	CID TrueType	Identity-H	yes yes yes	92	0
DJRGFL+CMTT10	Type 1C	Builtin	yes yes yes	94	0
KUQQBA+CMR10	Type 1C	Builtin	yes yes yes	95	0
MRWNMK+CMSY10	Type 1C	Builtin	yes yes yes	96	0
VJFNKB+CMMI10	Type 1C	Builtin	yes yes yes	122	0
BGNJML+CMMI8	Type 1C	Builtin	yes yes yes	123	0
OWMTXG+LinBiolinumOB-Identity-H	CID Type 0C	Identity-H	yes yes yes	127	0

A.2 예문

이 문서에서 사용한 예문은 <KTUG:러브레터>라는 글타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 표기법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표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내용은 구애의 편지인데 그 시절에는 『모범편지투』류의 책이 많이 팔리었다 한다. 그 가운데, 말하자면 “구애의 편지는 이렇게 쓰라”는 예문에 해당하는 글이다……. 주술호응은 어디갔는지 알 수 없는 어긋난 문장, 적절치 못한 비유, 지나친 과장, 심지어 구애인지 헐박인지 알 수 없이 스토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마지막 대목까지 이 글의 어디가 “모범적”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당대 낙양의 지가를 높인 책에 나오던 것이니 시절 풍물쯤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어쩌면 이렇게 정신나간 글을 써야할 정도로 정열이 지나친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일지도.

당시 핫했을 여행지 내지 데이트 코스가 대략 나오는데, 독섬 모래사장, 정릉, 만리포 해수욕장, 경주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염전독이라 한 것은 짐작건대 주안염전이나 소래염전 인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곳이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건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꼭 죽어버릴 거야”는 호소는 대부분 가망이 없다. 이 글에서 최악의 표현은 “네가 어린 여자라서 별것도 아닌 것을 오해하는 것”이라고밖에 읽을 수 없는 한 문장이다. 절대로 쓰면 안된다.

두벌식 입력열

dngid diddprp

thsudu! sork rmeofmf akssks rjtdms qjftj tkasusdlfksms tpdnjfdl wlskw1
 ↪ dksgdkTrpTtmqslRk?

rmeo thsufmf akssks rjtdms ghkrtlfgl rm djEjgks dndusdms dksldjTdjdy.
↪ rmrjtdms djelRkwlsk dnsaudwjrdldjTeksms rjtdlqslek.

dnflemf wdnldptjs dnfldml tkfkddmf andjtdlfrh akfgoTrpTdh. rmrjtdms
↪ dlwlfwjrdls tkfkddsl andjtdsl dldirlemf gorkau dnflemf tkfkddmf
↪ djfaksk ajfflgkfurh gks rjtdldjTrpTmqslRk!

rmfjisk dnflemf tkfkddp rmfjgks ehejrrhkssuadms cladlqgkf tneh djqtdjTejs
↪ rjtdl dksldjTdmqslRk.

dnflemf tkfkddms rmfjgks durwjddmf rjcu akclaso qnfxxdhffkTejs rjtdlqslek.
↪ rmfjgks dusthr thrdptj dnflsms dksl sksms wlrmaeh dlwmdf tn djqtdmqsllek.
enfdl tjfh rm EkEmtgks thsrlfdmf wkqrh dbdbgl gmfmms wj gksrkd tkdfb,
↪ Enrtja ahfotkwkddmf qkfqdkrkau djfaksk sodlfdmf RnaRndjTejs
↪ rjtdldjTdmqslRk.

rmQnsdlrpTdmqslRk.

ekfqkadp vufcuwls Rmxdjqtms rndnjfdml duawjs Enrdmf qkfqdkrkau qkato
↪ qjffpthfldhk ckrjdnsl dltmfdmf akwdkrkau whndp emfRmfgsms qkektanf
↪ thflfmf dnflsms rktma rlvdrl rkswlrgeonwl dksgdkTrpTdmqslRk.

Eofhsms vkfdnjf xodiddml vhrdiddmf vlgkdu dkanrjtehd qhdlwl dksgsms qka
↪ wjdfmd, rm Eodp tksakfnxjrdptjs shfneh rlQjfk dnflemf en thssladmf
↪ cnrqhrge dnfejs rm thflfmf rmeosms rldjrgktlqslRk.

rmflrh whfwhf gmfmms wjdfmddml qka tlosotrkdp tjfh qkfdmf ekarmrh ekrkdhf
↪ sodlfdmf rnl rldnfdurkau emeejs dlfdmf rldjrgktlqslRk.

rmflrh thsurk rudwndugoddmf Ejsks Eodp, rmfTp rm djfudns dlfgoddmf snsemfdmf
↪ vlgo rkau tjdnfdurdptj skfmf aksskwnejs rm tofhdns rldjremf.
dh! so rktmadms rmfjisk wlrma, dho dljgrp rhlfhdnsrkdy.

rmfjisk thsusms skdml qnfgoddmf akdmarjt snsanf gmffuwns thsurk dkslrpTdh.
↪ rmfjisk sksms qnfgodgkrp gkwlsms dksgdkTekrh todrkrgoTdh. snsanf
↪ gmffuwnsms rmeo thsurk so snsdp Enfutdl qlclaj dhkTejs rjtdlrl Eoansdp
↪ rmfjgks tkfkddml tlchfh djfgrls dnflemfdml tkfkddl dho dnsaudwjrdl
↪ dkslfks akfdlqslRk.

djism go dufmadldjTdmqsllek. rmrjtdms aksflvh gotndyrwkd.

rmeo thsurk dhwl dksgdms gotndyrwkd, rmrjtdms wjdakf xodiddms soflWhdueh
↪ qlcdjqtms gotndyrwkddldjTwldy.

rmfjisk sksms rmeo thsudml vuswlfmf rktmadp wlsls co rmeofh dlwndlfrksdml
↪ skfdmf qhsoTwldy. skwdlaus skweofh wj qkektrk tnvudtjs rm dufqdms
↪ tlosrlfndp rmeo thsudml ahtmqdms djswpsk ajanffj dlTdjTrh qkadlaus
↪ qkaeofh gmlgksgks ekfanfldp rmeo thsudml rnludns ahtmqdms ajanffj
↪ dlTdjTejs rjtdlqslek.

dl antjdns ghltkdemfdms akclaso so rktmadmf vleh dks skrp dljgrp ehfusosms
↪ rjtdlqslek.

thsudu! thsusms dho dlwp skdml dl rlakrgls ghltkddmf, dksl skdml dl rlakrgls
→ tkfkddmf rhlfhdns ghltkddmfh eocptlzlffurh gktlqslRk. sksms dkwlreh rmeo
→ thsurk rmfjgrp dhgogkrh rPtlsms rm dnjsdlsdmf ahfmqslek. wlrrma skfmf
→ ajfflgkfurh gksms rm dnjsdlsdmf sksms ahfmqslek. sksms wlswj d so dhs
→ ahrtnadmf qkcu rmeo thsuaksdmf tkfkdggo dhkTwldy.

thsudu! dngiddldu!

sksms rmagndpeh rmeodp eogks skdml tkfkddl rmfjgrp dyddlgkrpsms qusgkw
→ dksg-dmf rpy.

rmflrh so wktls rmeofmf tkfkdgkf tn dltms whrjsdp whrmadlfkeh qnftnsgks
→ wjadms rkwlrh dltwl dksgeksms ep sksms wktlsdmf rkwrh dltmqsllek.

dkwlr rmeo thsudml dhgork andjtdlswlsms ahfmsk sk Ehgks rmfjgks dhgodp
→ goauidms gkw dksgrpTdh.

rmrjtdms qusauidgkaus gkftnfhr thsudml dhgosms wjawja ej rlvdjrkrl Eoansdp.

rmeo thsudu!

dnflemf enfdml tkfkddml aksskadms dnsaudwjrdldjTdh. sork wlrrma anffjrkfusms
→ rmeo thsufmf dlwwl ahtgksms rjtcjfja rmeo thsueh Ehgks Rhr ehfdkdhrp
→ gkseksms rjtdlqslek.

rmeo thsudu! rmeo thsudml rm dhgofks sjansk thsudlrldp rmfjgks xktdptj dhsms
→ dhgosms dkslRkdy.

rmfjjsk thsurk RmxRkw skfmf ajfflgksms rmfjgks rhlfhdnadmf skdprp wnsekaus
→ skdprps dl rhlfhdnadmf dlrusof ehfldhk wktlsdms djqtdh. sksms dlwps
→ akwlakr rlfdmf Ejskdi gkrpTdmqslek. rmfjgrp ehlaus ekdtlsdms rmwpdi
→ qlfhth ahems rjtdmf dkf rjtdlau, Ehgks skdprp ehfdkdhf rjtdlqslek.

sksms rm zkazkagks rm wldhrdp rktjeh sksms chtqnfdmf zuemfrh rmeo thsurk
→ ehfdkdhsms, wlswj rmeo thsufmf rlekflrh dltRpTdmqslek.

세벌식 입력열

jbm6a j6ajckc

nvheje? hrkf kgurygw ifshfs ktqjgs ;twnt nfzhesjdyfhgs ncj9twjd ldhfl
→ jfSjf2kc2jg3hdkkf.

kgur nvheygw ifshfs ktqjgs m/fxndwmd kg jtuutms jbesjgs jfhdt2jtj4.
→ kgktqjgs jtudkkfldhf jbsiealtxjdt2ufhgs ktqjd3hduf.

jbydugw lbj9djcnts jbydj8 nfyfajgw ibjtqjdyfkv ifwmr2kc2jv. kgktqjgs
→ jdldwltxjds nfyfajdh ibjtqjdh jdj6kdygw mrkfie jbydugw nfyfajgw
→ jtwifhf itwydmfyekv mfs ktqjdjt2kc2jg3hdkkf?

kgythf jbydugw nfyfajc kgytmfs uvutxk/fshezjgs odzjd3mfw nbuv jtXjt2uts
→ ktqjd jfhdt2jg3hdkkf.

jbydugw nfyfajgs kgytmfs jexltajgw ktoe ifodzhr ;bw'fjvwyf2uts ktqjd3hduf.
→ kgytmfs jesnvx nvxjcnt jbydhgs jfhd hfhs ldkgzuv jd#jgw nb jtXjg3hduf.
→ ubwjd ntyv kg uufuugqmfs nvskdwjgw lf3kv j5j5md mgyghgs lt mfskfa nfay5,
→ uubxntz ivyr nflfajgw ;fDjfkfje jtwifhf hrjdwjgw kkbzkkbjt2uts
→ ktqjdt2jg3hdkkf. kg;;bsjdkc2jg3hdkkf. ufw;fzjc pewoelds kkgWjtXhgs
→ kbj9twj8 jezltz uubxjgw ;fDjfkfje ;fznr ;twyc nvydj/f ofktjbs jdngwjgw
→ if#jfkfje lvnbjc ugwkkgRhgs ;fufq ibw nvydygw jbydhgs kfngz kdQjd
→ kfsldxmr ubld jfSjf2kc2jg3hdkkf. uuryvhgs pfwj9tw 'rj6aj8 pvxj6ajgw
→ pdmfje jfib ktquv ;vjdld jfShgs ;fz ltayga, kg uurjc nfsifyb'txjcnts
→ hvybuv kd;;tyf jbydugw ub nvshdzjgw obx;vxmr jbwuts kg nvydygw kgurhgs
→ kdjtxmfnd3hdkkf. kgydkv lvwlvw mgyghgs ltaygaj8 ;fz ndhrqkfjc ntyv
→ ;fwjgw ufzkgkv ufkfjvw hrjdwjgw k9d kdjbwjekfje ugAuts jdwwjgw
→ kdjtxmfnd3hdkkf.

kgydkv nvhekf kealbjemrajgw uuthfs uurjc, kgwnnc kg jtyejbs jdwmraj8
→ hbsugwjgw pdmr kfie ntjbwjexjcnt hfygw ifshflbutz kg nryvjbs kdjtxugw.
→ jv? hr kfngzjgs kgythf ldkgz, j/r jdyt1kc k/dyvjbkskfj4.

kgythf nvhehgs hfj8 ;bwmrajgw ifjgzkkktq hbsibw mgwyelbs nvhekf jfhdkc2jv.
→ kgythf hfhs ;bwmramfkc mflhdgs jfSjf2ufkv nrakfxmr2jv. hbsibw
→ mgwyelbhgs kgur nvhekf hr hbsjc uubyeqjd ;dodjt j/f2uts ktqjdkd uuribsjc
→ kgytmfs nfyfaj8 ndovyv jt@mds jbydugwj8 nfyfajd j/r jbsiealtxjd jfhdyfs
→ ifwjd3hdkkf.

jthg mr jeygzjdj2jg3hduf. kgktqjgs ifsydpv mrnbj4xlfa. kgur nvhekf jvld
→ jfSjgs mrnbj4xlfa. kgktqjgs ltaifw 'rj6ajgs hrydllvjeuv ;dZ jtXhgs
→ mrnbj4xlfajdj2ldj4. kgythf hfhs kgur nvhej8 pesldygw kfngzjc ldhdsor
→ kguryv jdlbjdwkfsj8 hfwjgw ;vhr2ldj4. hf#jdies hf#uryv lt ;fufqkf
→ nbpeants kg jeDjgs ndskdybjc kgur nvhej8 ivng3jgs jtslchf itibwyt
→ jd2jt2kv ;fzjdies ;fzuryvm8mfsms ufwiwydjw kgur nvhej8 k9djejbs
→ ivng3jgs itibwyt jd2jt2uts ktqjd3hduf.

jd ibntjbs m/dnfauwgjgs ifodzhr hr kfngzjgw pduv jfs hfkc jdyt1kc uvyehrhgs
→ ktqjd3hduf.

nvheje? nvhehgs j/r jdlc hfj8 jd kdifxmds m/dnfajgw, jfhd hfj8 jd kdifxmds
→ nfyfajgw k/dyvjbz m/dnfajgyv urocnd0dwyekv mfnd3hdkkf. hfhs jfldxuv
→ kgur nvhekf kgyt1kc jvmrmfkv k7ndhgs kg j9tsjdsjgw ivyg3hduf. ldkgz
→ hfygw itwydmfyekv mfhgs kg j9tsjdsjgw hfhs ivyg3hduf. hfhs ldslda hr
→ jvs ivxbnzjgw ;foe kgur nvheifsjgw nfyfamr j/f2ldj4.

nvheje? jbm6ajdje? hfhs kgzmbjcuw kgurjc urmfs hfj8 nfyfajd kgyt1kc
→ j4ajdmfkchgs ;esmflj jfSjgw kcj4. kgydkv hr lfnds kgurygw nfyfamfw nb
→ jd2hgs lvktsjc lvkgzjdyfuv ;bwnbsmfs ltzjgs kfldkv jd2ld jfSufhgs uc
→ hfhs lfnds jgw kf#kv jd2jg3hduf.

jfldx kgur nvhej8 jvmrkf ibjtqjdsldhgs ivyghf hf uuvmf s kgytmfs jvmrjc
↪ mrieajgs mfl d jfSkc2jv.

kgktqjgs ;esieamfies mfw nbyvx nvhej8 jvmrhgs ltzltz ut kdQjtkfk d uuribsjc.
kgur nvheje? jbydugw ubwj8 nfyfaj8 ifshfzjgs jbsiealtxjdjt2jv. hrkf ldkgz
↪ ibwytkfyehgs kgur nvheygw jd#ld ivqmfhgs ktqoty tz kgur nvheuv uuvmf s
↪ kkvx uvwjfjvkc mfsufhgs ktqjd3hduf. kgur nvheje? kgur nvhej8 kg jvmryfs
↪ htibhf nvhejdkdj c kgytmfs 'fjqcnt jvhgs jvmrhgs jfhdwkkfj4.

kgythf nvhekf kkgWkkfld hfygw itwydmfhgs kgytmfs k/dyvjbzjgw hfjckc lbsufies
↪ hfjckcs jd k/dyvjbzjgw jdkehrw uvydj/f lfndsjs gs jtXjv. hfhgs jdlcs
↪ ifldifx kdwjgw uuthfj6 mfk c2jg3hduf. kgyt1kc u/dies ufandsjgs kglcj6
↪ ;dyvnn ivugs ktqjgw jfw ktqjdie, uuvmf s hfjckc uvwjfjvw ktqjd3hduf.

hfhgs kg 0fz0fzmfs kg ldjvxjc kfntuv hfhgs ovq;bwjgw 0eugwkv kgur nvhekf
↪ uvwjfjvhgs, ldslta kgur nvheygw kdufydkv jd2kc2jg3hduf.

은 타자로 조판

우향 양에게

소녀여! 내가 그대를 만난 것은 벌써 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겠읍니까.

그대 소녀를 만난 것은 확실히 그 어떠한 우연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선 우리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했겠오. 그것은 이질적인 사랑이니 무엇이니 이야기를 해가며 우리들 사랑을 얼마나 멀리하려고 한 것이었겠읍니까!

그러나 우리들 사랑에 그러한 도덕관념은 침입할 수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읍니까.

우리들 사랑은 그러한 역정을 거쳐 마침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속 속에서 우리는 아니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읍니다. 둘이 서로 그 따듯한 손길을 잡고 유유히 흐르는 저 한강 상류, 독섬 모래 사장을 밟아가며 얼마나 내일을 꿈꾸었던 것이었읍니까. 그뿐이겠읍니까. 달밤에 펼쳐진 끝없는 구월의 엄전 독을 밟아가며 밤새 벌레 소리와 차거운 이슬을 맞아가며 조수에 들끓는 바닷물 소리를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해 두지 않았겠읍니까. 때로는 팔월 태양의 폭양을 피하여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밤 정릉, 그 때에 산마루턱에선 노루도 기벼락 우리들 두 손님을 축복해 울던 그 소리를 그대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졸졸 흐르는 정릉의 밤 시내가에 서로 발을 담그고 다가올 내일을 귀 기울여가며 듣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소녀가 경주 여행을 떠난 때에, 글썽 그 어려운 일행의 눈들을 피해 가며 서울역에서 나를 만나주던 그 새로운 기억들. 오! 내 가슴은 그러나 지금,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그러나 소녀는 나의 불행을 마음껏 눈물 흘려준 소녀가 아니겠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오. 눈물 흘려주는 그대 소녀가 내 눈에 뚜렷이 비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시초로 얹힌 우리들의 사랑이 왜 운명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느 해 여름이었읍니다. 그것은 만리포 해수욕장. 그대 소녀가 오지 않은 해수욕장. 그것은 정말 태양은 내리쬐어도 빛 없는 해수욕장이었지요. 그러나 나는 그대 소녀의 편지를 가슴에

지닌채 그대로 이주일간의 날을 보냈지요. 낮이면 낮대로 저 바닷가 수평선 그 얇은 신기루에 그대 소녀의 모습은 언제나 머물러 있었고 밤이면 밤대로 희한한 달무리에 그대 소녀의 귀여운 모습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회상들은 마침내 내 가슴을 찢고 안 나게 이렇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소녀여! 소녀는 왜 이제 나의 이 기막힌 회상을, 아니 나의 이 기막힌 사랑을 괴로운 회상으로 대체시킬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그대 소녀가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그 원인을 모릅니다. 지금 나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 원인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진정 네 온 목숨을 바쳐 그대 소녀만을 사랑해 왔지요.

소녀여! 우향이여! 나는 금후에도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렇게 웅이하게는 변하지 않을 게요. 그리고 내 자신 그대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점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나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대 소녀의 오해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나 또한 그러한 오해에 매명은 하지 않겠요.

그것은 변명하면 할수록 소녀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가기 때문에.

그대 소녀여! 우리들 둘의 사랑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요. 내가 지금 물려가려는 그대 소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대 소녀도 또한 꼭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 소녀여! 그대 소녀의 그 오해란 너무나 소녀이기에 그러한 탓에서 오는 오해는 아닐까요.

그러나 소녀가 끝까지 나를 멀리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나에게 준다면 나에게는 이 괴로움을 이겨낼 도리와 자신은 없요. 나는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 것이며, 또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그 캄캄한 그 지옥에 가서도 나는 촛불을 켜들고 그대 소녀가 돌아오는, 진정 그대 소녀를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입력열 내의 유보 문자

세벌식 최종으로 입력하다 보면 이른바 \TeX 유보 문자를 평범한 자모로서 입력해야 한다. \$, #과 같은 것이다. 그밖에 ', ;, !, @과 같은 글자들이 제대로 문자로 식자되어야 한다. 다만 %만은 ww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잘 동작하는지를 시험한다. 마지막 행은 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후에 \$가 수학 모드로 동작하게 복원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
\sebeoldirect{'r;rx, jg$uf, jd@uf,
↪ kkf!uf, mbwWuf, kf#uf}\\
\sebeoluni{'r;rx, jg$uf, jd@uf, kkf!uf,
↪ mbwWuf, kf#uf}\\
\dubeoldirect{xoqor, dmfvek, dlfrek,
↪ RkRek, gnfkek, rkwek}\\
$a^n+b^n=c^n$
```

태백, 읍다, 읍다, 꺾다, 훑다, 갖다
태백, 읍다, 읍다, 꺾다, 훑다, 갖다
태백, 읍다, 읍다, 꺾다, 훑다, 갖다
 $a^n + b^n = c^n$

A.3 enqjftlr 패키지 요약

패키지 로딩과 패키지 옵션

```
\usepackage[hangulfont={<fontname>}]{enqjftlr}
```

hangulfont 한글을 식자할 폰트 이름을 지정한다.

hangulfontfeature 지정한 폰트에 적용할 feature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다. (보통 지정할 필요 없다.)

주요 명령

\hg 인자로 두벌식 입력된 아스키 문자열이 온다.

\hangu1, \endhangu1 여러 문단이 올 수 있다.

\enqjf 한글로 입력한 문자열을 두벌식 아스키 문자열로 변환한다.

\txdash, \txendash -가 특별한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dash를 적어야 할 때.

\hangulfontchange 식자되는 폰트를 바꿀 때.